

문화예술 | Latin American Culture

페루 쿠스코의 케추아 세계와 광산

기예르모 살라스 카레뇨

상당수의 민족지 연구는 풍광을 구성하는 고유한 이름이 붙은 장소들이 독자적인 행위주체성과 의도성을 지닌다고 간주하는 케추아 세계의 관례를 기록하고 있다. 안데스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다수는 이 관례를 인식론의 문제로 접근한다. 이들은 케추아 사람들이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 존재(장소)를 믿음이나 종교나 비유적인 언어로 대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 관례를 존재론, 다시 말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세계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문제로 접근하려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케추아 세계에서 이런 존재가 실질적인 행위주체가 되는 방식 및 거대 광산이 쿠스코 지역에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 글은 자연과 문화, 과학과 정치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세계에 직면했을 때 근대적 관념의 실체가 어떠한 한계를 보이는가를 탐구하는 최근 연구(Blaser 2009; Viveiros de Castro 2004)와 대화하려는 시도이다. 예를 들어, 마리솔 데 라 카데나는 안데스라는 맥락에서 이 문제에 천착한다. 데 라 카데나는 행위주체로서의 산(山)이 안데스의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스스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형식적인 정치에 균열을 가져오는지를 논의한다.

안데스 고산지대의 원주민을 연구하는 민족지학자들은 원주민이 산에 행위주체성을 부과하는 과정을 기록해왔다(Allen 1988; Fuenzalida 1980; Isbell 1978; Martínez 1983; Morote 1956). 그렇지만 산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행위자와 각종 기구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논의한 학자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엘스의 선구적인 논문(1969)은 산과 국가 관료제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이외에도 앙시용(1984), 고스(1994), 데이비드 가우(1980), 로잘린드 가우(1982), 내쉬(1979)는 산이 정치적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논의한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산에 깃들여 있는 정령을 근거로 그 존재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들에게 산 자체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물질과 영혼의 분리를 재생산하게 된다.

페루의 광산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광물 채굴 면적은 1993년과 1997년 사이에 4백만 헥타르에서 약 2천 4백만 헥타르로 급증했다(De Echave 2005:10). 광산 부문의 성장은 광물의 높은 시장 가격과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지속되었다(Bebbington et al. 2008). 그렇지만 국가 기관은 광산회사와 지역공동체 사이의 갈등을 방관하기로 악명이 높았다(Revesz & Diez 2006). 이런 점에서 광물 채굴이 농촌 공동체의 격렬한 저항을 초래했고, 페루 농촌에서 발생하는 사회분쟁의 주된 요인이었다는 점은 놀라울 것이 없다. 일례로 페루 옴부즈만이 2012년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247건의 분쟁 가운데 60퍼센트가 ‘사회적-환경적 분쟁’이었다(Defensoría-del-Pueblo 2012).

쿠스코는 최근까지도 광산 지역이 아니었다. 쿠스코의 유일한 노천광산은 에스피나르주(州)에 위치한 툰타야 광산이다. 툰타야는 1985년 국영회사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1996년 민영화된 이후 현재는 엑스트라타사(社) 소유이다. 툰타야에 매장된 광물은 곧 고갈될 것으로 보이며, 중앙정부는 인근의 대규모 광상 안타파카이에 대한 채굴 사업(한화로 약 1조 5천억 규모)을¹⁾ 엑스트라타사에게 허가했다(Xstrata 2012).

그 밖에도 쿠스코에서 진행 중인 거대 광산 사업이 여럿 있다. 허드슨 베이 미네랄은 내년에 콘스탄시아 광산 사업(약 1조 5천 5백억 규모)에 착수할 계획이며(Hud Bay 2013), 팬 퍼시픽 마이닝은 올해 하반기부터 케추아 광산 사업(약 1조원 규모)을 투자할 계획이다(Bloomberg 2011). 게다가 지역 전반에 걸쳐, 특히 춤비빌카, 파루로, 에스피나르에서 광산 탐사가 진행되고 있다(CooperAcción2010). 광산개발 반대 시위가 이어졌고, 정부는 무력을 동원한 강경진압으로 일관했다. 2012년 5월, 에스피나르의 주민 공동체들은 엑스트라타사에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예산의 확충과 예산 집행 방식의 개선, 환경감시 범주의 수정 등을 요구했다. 몇 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협상 과정 내내 사측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주민들의 요구는 점차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고, 시위는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공동체주민 가운데 두 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수많은 참가자가 부상당했다. 인권운동가를 포함해서 많은 주민이 광산 사업지에 설치된 경찰서에 체포되었고, 여기에서 고문을 당했으며, 테러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주지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옥됐다. 주의 수도에 위치하는 틸타야 재단 사무소(틸타야의 개발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는 시위대에 의해 불에 탔다(La República 2012).

쿠스코에 위치한 광산과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지역공동체, 광산회사, 정부 관료의 관계에서 산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다각도에서 살펴볼 것이다.

사례 1

2000년, 틸타야 광산회사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방문한 참에 필자는

1) 이하 괄호안 액수는 모두 환화(1달러 당 1030원 기준)이다—옮긴이.

광산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작은 주민사업체의 관리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인근 케추아 공동체의 주민이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광산개발로 피해를 당한 인근 공동체가 여러 차례 항의를 제기한 상황이었고, 이는 일련의 시위와 협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03년에 마침내 사측이 지역발전 명목으로 수익의 3퍼센트를 기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Scurrah 2008).



양카시 고지대에 위치한 노천광산

관리자와 대화가 끝나갈 무렵, 나는 광산을 위해 일하는 것이 광산회사에 대한 관리자의 태도에 어떤 변화라도 가져왔는지 궁금해졌다. 이에 “당신이 현재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광산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관리자는 짧게 대답했다.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광산회사가 아니에요. 그건 산이에요.” 이 말을 통해 그는 공동체의 노동을 창출하는 근원을 산의 행위주체성에 돌리고 있으며, 동시에 광산회사가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그 어떤 주장도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산이 광산을 허용했다는 의미이다. 즉 산이 자기 몸의 일부(광물)를 가져가도록 허용했다는 의미이다. 광물을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시장 체제를 통해서, 산의 몸 일부는 고용을 창출하고, 일부는 개발 사업 자금으로 유통된다. 하지만 이 돈은 채굴 과정을 중재하는 광산회사에 대한 저항과 협상을 통해서 획득해야 한다. 산은 자신이 창출하는 부를 분배하는 문제를 해당 지역의 인간들에게 넘겨주고, 인간은 협상을 통해 이를 나누어가진다.



쿠이유리티 순례에 나선 무용단원들이 쿨키펠쿠 빙하 하단부에 모여 있다

사례 2

2007년, 쿠이유리티(Quylluriti) 신전이 위치한 지역에서 새로운 광산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지역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쿠이유리티 신전은 이 지역을 찾는 순례 행렬의 목적지로서 쿨키펠쿠(Qulquipunku) 빙하와 연결되어 있고, 나아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 아우산카테(Ausangate) 빙하와 인접하고 있다.

전 지역에서 모여든 수 백 명의 무용단원과 수 천 명의 추종자로 구성된 쿠이유리티 형제단은 광산 반대 운동이라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이 광산 개발에 저항하는 시위를 조직했다. 주요 무용단원은 의례복을 갖춰 입고 시위를 벌였고, 시위 대열 때문에 쿠스코 시내 중심지가 마비되었

다. 이는 분명 예전에는 볼 수 없던 유형의 시위였다(De la Cadena 2010). 시위대에는 빙하 인근 공동체의 주민도 참여했다. 이 중에는 아우산가테 근처에서 살면서 인간과 산의 관계를 중재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로 알려진 나사리오 투르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발언은 마리솔 데 라 카데나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데 라 카데나는 나사리오가 시위에 참여한 이유가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고지대 초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다고 설명한다.

아우산가테는 자신이 다스리는 산에 [...] 광산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아우산가테는 화를 낼 것이고, 사람들을 죽이려 들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려면, 광산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아우산가테의 분노를 막는 것이 나사리오가 시위대에 합류한 이유였고, 이런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있다(De la Cadena 2010:339).

나사리오의 입장은 이 지역에서 최고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푸(Apu)가²⁾ 광산을 추진하는 국가 기관의 의지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푸는 자기 영역에 광산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폭력까지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아푸와 국가기관이라는 두 권력을 중재함으로써 상충하는 의지로 인하여 인간이 다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의도이다. 지역의 인간적인 정치권력 중심지에서 행한 시위는 퍼포먼스이며, 그 관객은 광산회사이다. 이는, 나사리오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만일 광산 개발이 쿠이유리티 신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광부의 죽음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미연에 아우산가테와 광산회사라는 양 행위주체의 충돌을 방지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광산 개발로 쿠이유리티 신전에 피해가 생길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사회 불안의 정도를 엿볼 수 있다.

2) 안데스 지역에서 산의 정령을 의미한다—오키인.



아푸 공동체의 의례와 행정 중심 구역

사례 3

2008년, 쿠스코의 농촌 전역에 광부들이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아푸(Hapu, 파우카르탐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동체에는³⁾ 광부의 존재에 관한 극도의 두려움이 섞인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때마침 필자는 이 지역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필자는 아푸공동체 주민들에게 “산이 그토록 강력한 존재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가?”, “광부들이 자기 안으로 들어와 광물을 가져가도록 산이 가만히 내버려두겠는가?”라고 질문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 중 일부는 아푸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시사

3) 산의 정령을 의미하는 아푸(Apu)와 공동체를 의미하는 아푸(Hapu)의 우리말 표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후자를 아푸공동체로 옮긴다—옮긴이.

했다. 일부에서는, 아푸공동체 주민의 절반에 달하는 개신교도가 더 이상 산에 음식을 봉헌하는 관습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산을 노하게 했으며, 아푸(Apu)가 광산을 허용한 것은 개신교 주민들을 응징하려는 뜻이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주민들은 자기들과 광산기술자들의 차이를 지적했다. 광부들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산에 대해 자기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공동체 주민보다 음식 봉헌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은 광부가 광물을 가져가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는 답변했다. 광부들이 음식 봉헌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한다면 산이 마음을 바꾸어 광부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고, 반대로 산에 의존하는 투박한 인간들은 한 쪽에 제쳐두고 더 이상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첫 번째 유형의 답변은 아푸공동체 내부의 상이한 분파들 간의 갈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산의 잠재적인 행동을 설명한다. 이 경우에 산은 자신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도에 대한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자신에게 봉헌을 하는 사람들조차 응징할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의 답변은 봉헌의 질에 따라 산이 광부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스페인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전문가들과 케추아어 사용 농민들의 지식이 인종적·종족적으로 계서화되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 사례는 인간과 산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절차적이고도 불안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제3자가 드리는 봉헌이 확연히 뛰어날 경우 산은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의 안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인간과 산의 관계는 불변도 아니고 고착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만일 이 관계가 상호 존중이나 배려에 근거하지 않게 되면 파탄이 날 수도 있고, 설상가상으로 이는 신의 노여움을 촉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동체의 개신교도가 산에 음식을 봉헌하지 않게 됨에 따라 산이 광부들을 들이는 방식으로 말이다. 아푸공동체 주민들의 관념에서 보자면, 산은 어느 한쪽이 더 충성을 바칠 경우, 기존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의무가 없다. 산은 인

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세계에서 행동하며, 사회적 맥락이 변하고 권력 관계가 이동함에 따라 정치적 충성 관계 역시 재편될 수 있다.

광산 활동이란, 광물 채굴이 산의 몸 일부를 가져간다는 것이므로 산과 일종의 협상을 맺어야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광산 노동자들이 음식 봉헌을 통해 산과 협상할 수 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놀라울 것이 없다. 이 사례들은 안데스의 안타밤바(Gose 1986:303)와 콘추코스(Salas 2002:340) 지역에서도 보고되었다. 안타밤바와 콘추코스에서 광산 노동자들은 음식 봉헌의 일환으로 인간을 산에 봉헌해 왔으며, 이는 광산의 잦은 인명 사고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우산가테와 같은 존재가 광산에 완고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노천 광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노천 광산은 기존의 지하 광산과는 달리 산의 생식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산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아프와 그 안에 거주하는 인간이 공유하는 이해관계는 명확하다.

필자가 앞에서 열거한 사례는 산, 광산회사, 인간 공동체가 관여하는 협상에서 국가가 주요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례에서 정부의 역할은 전무한 반면, 두 번째 사례에서 정부 기구는 광산 허가라는 제한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광산회사가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광물 붐은 케추아 세계의 관점에서 산이 어떻게 국가에 공공연하게 반대 입장을 보일 수 있고, 정부의 개입 없이도 광산회사와 어떻게 협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산에 의존하는 공동체에게 어떻게 상이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산의 정치적 개입이 공적 영역에서 점차 두드러지게 부각됨에 따라, 일부는 이를 영악한 지도자가 무지한 대중을 조작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거나 낭만주의에 빠진 환경주의자가 부리는 억지라고 치부하기도 한다. 그리고 학계의 지배적인 지식 체계나 공식적인 정치 기구, 페루 국내와 해외의 주류 언론에

서는 산과 관계를 맺는 원주민의 관례를 단순한 ‘문화’ 나 ‘종교적 믿음’ (궁극적으로 잘못된 관념이다)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단지 관광객의 소비 대상으로 상품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사회 지배 부문은 귀머거리 행세, 장님 행세를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원주민의 사회적 저항을 다룬 뉴스가 전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이라는 존재를 사회(인간 사회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원주민 관례와 담론이 급증함으로써 그러한 행세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참고문헌

- Allen, C. J. 1988. *The hold life has: coca and cultural identity in an Andean community*.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Ansion, J. M. 1984. *Demons des Andes: la pensée mythique dans une région des Andes péruviennes (Ayacucho)*. Louvain-la-Neuve: CIACO.
- Bebbington, A., D. Humphreys Bebbington, et al. 2008. “Mining and Social Movements: Struggles Over Livelihood and Rural Territorial Development in the Andes.” *World Development* 36, 2888-2905.
- Blaser, M. 2009. “Political Ontology.” *Cultural Studies* 23, 873-896.
- Bloomberg 2011. “Pan Pacific Copper to Start Quechua Mine in 2014” (<http://www.bloomberg.com/news/2011-01-03/pan-pacific-copper-to-start-quechua-mine-in-2014-gestion-says.html>).
- De la Cadena, M. 2010. “Indigenous cosmopolitics in the Andes: Conceptual reflections beyond ‘Politics’.” *Cultural Anthropology* 25, 334-370.
- CooperAcción 2010. *Informe de seguimiento de las Concesiones Mineras en el Perú-Región Cusco*. Lima: CooperAcción.
- Defensoría-del-Pueblo 2012. *Reporte de Conflictos Sociales 100*. Lima: Adjuntía para la Prevención de Conflictos Sociales y la Gobernabilidad.
- Earls, J. 1969. “The organisation of power in Quechua mythology.” *Journal of the Steward Anthropological Society* 1, 63-82.

- De Echave, J. 2005. *Mining Activity and Community Rights*. Lima: CooperAcción.
- Fuenzalida, F. 1980. "Santiago y el Wamani." *Debates en Antropología* 5, 155-187.
- García, A. 2011. "Alan García contra las ideologías absurdas panteistas." <http://youtu.be/2Vf4WfS5t08>
- Gose, P. 1986. "Sacrifice and the Commodity Form in the Andes." *Man* 21, 296-310.
- 1994. *Deathly waters and hungry mountains: agrarian ritual and class formation in an Andean tow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Gow, D. 1980. "The roles of Christ and Inkari in Andean religion." *Journal of Latin American Lore* 6, 279-96.
- Gow, R. 1982. "Inkari and Revolutionary Leadership in the Southern Andes." *Journal of Latin American Lore* 8, 197-223.
- HudBay 2013. "Constancia" <http://www.hudbayminerals.com/English/Our-Business/Development/Constancia/default.aspx>
- Isbell, B. J. 1978. *To defend ourselves: ecology and ritual in an Andean villag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La República 2012. "Protesta en Espinar degeneró en muertes." *La República*, May 29.
- Martínez, G. 1983. "Los dioses de los cerros en los Andes." *Journal de la Société des Américanistes* 69, 85-115.
- Morote, E. 1956. "Espíritus de Montes." *Letras* 56, 288-306.
- Nash, J. C. 1979. *We eat the mines and the mines eat u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evesz, B. & A. Diez 2006. "El triángulo sin cúpula (o los actores desregulados en los conflictos mineros)." In *Perú Hoy, nuevos rostros en la escena nacional* (ed) E. Toche, 49-88. Lima: DESCO.
- Salas, G. 2002. "Jóvenes, animales y monstruos en las punas sanmarquina. Algunos motivos de la tradición oral de Conchucos." *Anthropologica* 20, 333-350.
- Scurrah, M. 2008. *Defendiendo Derechos y Promoviendo Cambios: El estado, las empresas extractivas y las comunidades locales en el Peru*. Lima: IEP, Oxfam International.
- Viveiros de Castro, E. 2004. *Perspectival Anthropology and the Method*

of Controlled Equivocation, *Tipiti* 2, 3-22.
Xstrata 2012. “Our operations”
<http://www.xstratacopper.com/EN/Operations/Pages/Operations.aspx>

[강정원 옮김]

기예르모 살라스 카레뇨(Guillermo Salas Carreño) - 페루 가톨릭대학교(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인류학과 교수
강정원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